

국내 서점의 산 역사 종로서적 부도

경영진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태 장기화될 전망

지난 6월 4일 종로서적(대표 장덕연)이 부도를 냈다. 종로서적은 지난 3일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종로지점에 돌아온 어음 2천만원과 국민은행 광고지점에 돌아온 어음 4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4일 추가로 만기가 돌아온 2천8백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를 냈다. 종로서적측은 이날 5천여만원을 결제하더라도 5일 만기가 예정된 6억여원의 어음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4백여개 출판사 모여 대책위 구성해

종로서적은 1907년 탄생한 기독교서점을 모태로 1931년 '종로서관'으로 출범했다. 종로 한복판에 자리잡아 국내 서점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건물의 특성상 매장이 여러 층으로 나뉘고 주차시설이 없어 현대식 매장과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주변 대형 서점들과의 경쟁에서 밀린데다, 인터넷 서점의 도서 할인판매 전략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창업가 가족 사이의 갈등이 보태져 능동적 변화를 꾀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출판영업인회의(회장 홍동수)측은 지난 4월부터 종로서적의 사정을 파악하고 장덕연 사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장사장은 이때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5월 초에 입장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5월 10일 아무런 통보 없이 출판사들의 지불을 연기했고 5월 17일에야 일부 출판사들에게만 지불했다. 하지만 이날 7천만원 정도를 지불하지 못했다. 종로서적측은 "새로운 인수자가 실사과정 중"이라고 밝혔을 뿐 아무런 공식 입장도 표

명하지 않았다. 이미 직원들도 5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종로서적이 아무런 통보 없이 부도를 내자 각 출판사 영업인들은 부도 당일 아침부터 잔고 확보를 위해 종로서적 주변에 모였다. 그러나 종로서적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종로서적은 어떤 공식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종로서적의 카드결제 통장을 직원들이 가압류한 상태라는 소식이만 전해졌다. 6월 5일 출판영업인회의측은 장덕연 사장과 접촉하고 장사장과 피해 출판사, 음반사, 문구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장사장은 이 날 회의장에마저 나타나지 않았고 "머칠만 맘미를 달라"는 메시지만 전해왔다.

회의에 참석한 4백여개 출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출판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종로서적에 남아 있는 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책위를 꾸려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종로서적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위탁을 증명할 만한 계약서가 대부분 출판사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대책위는 음반사, 문구회사 등을 포함한 출판단체, 출판유통, 영업, 서점업계 등 출판계 각 분야가 참여해 26명으로 꾸러졌다.

지방 총판 연쇄 부도로 출판계 파장 우려돼

대책위가 김홍년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실사해본 결과 올 3월말 기준으로 잔고 93억원, 미도래 어음 13억8천만원, 직원 퇴직금 13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대책회의에 모인 4백여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파



지난 6월 5일 4백여개 출판사 관계자들이 출협 강당에 모여 종로서적 문제를 논의했다.

악한 결과 출판사 잔고는 34억원으로 드러났다. 현재 종로서적 장사장은 아무런 공식입장 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이사는 "지금 제삼자가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제삼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매장내 재고도서는 대책위와 종로서적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종로서적의 부도는 2~3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게 출판계의 중론이다. 이미 지난해 1차 부도설이 있었고, 그 뒤로 종로서적은 자금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5월 도서의 출고정지를 해놓은 출판사들도 많았다. 종로서적의 부도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될 곳은 지역 총판들이다. 이들은 잡지 등을 종로서적에 독점 공급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손실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덕연 사장 등 종로서적측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대표 김언호)는 지난 6월 7일 성명을 내고 종로서적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부실경영"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명문서점이 사라지는 일을 방지할 수 없음을 사회와 범출판계에 호소"했다. 또한 "종로서적을 발전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출판계 한쪽에서는 여론의 이런 '종로서적 살리기 운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출판영업인은 "종로서적을 살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다분히 정서적인 반응이다"면서 출판계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